

지하철공사 산악동호인

김 중 진

(지하철공사 운수처 운수계획과장)



▲천왕봉에 오른 일행. 왼쪽부터 이부장, 장과장, 염역장, 필자.

작년 10월12일 단풍구경을 위해 설악산 무박산행을 했으나 마침 가물어서 단풍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서운해 하고 있었는데 평소 산에 한 번 같이 가자고 하던 지하철산악회 전회장 염병식 2호선 신천역 역장이 주말에 지리산 종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다.

지리산에 오를 생각을 하니 신바람이 났다. 팀은 염역장, 운수처 이종하

영업부장, 장명구 감사과장 등 4명. 우리는 17일 (금) 밤10시 진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18일 새벽 5시, 진주역에 내려 중산리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한참 호젓한 도로를 달리는데 커다란 물체가 택시 앞을 가로 막았다. 기사가 급히 속도를 늦추는 사이에 쳐다보니 큰 노루가 길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노루가 배가 고파 민가에 내려왔는지, 자연보호가 잘되어 야생동물이 많아졌는지 아무튼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자위하면서 중산리에 도착, 음료수와 약간의 물품을 준비하고 어둠에 덮힌 지리산을 오르기 시

작했다.

올해도 맨발 등산 감행

바윗길을 오래 오르니 어둠이 서서히 걷히면서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8시경, 법계사에 도착해 조식을 하고 천왕봉까지 맨발로 가기로 했다. 나는 작년에도 맨발등산을 했다. 등산화를 벗어 목에 걸고 한참 오르는데 젊은 공원관리소 직원이 오름길에 쓰레기를 줍길래 같이 올라갔다.

나는 아직도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맨발에 신경이 쓰이나 보다. 발이 아프냐? 신발이 망가졌느냐? 하고 물어와서 나는 “자연보호가 잘되어 맨발로 다녀도 좋고 또 맨발등산이 건강에 그만이다”라고 하여 그들의 시선을 따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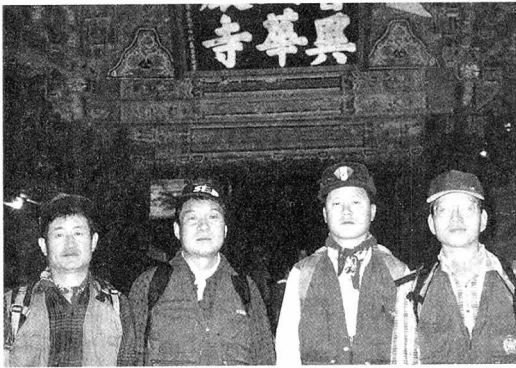
급경사의 바윗길을 오르니 드디어 천왕봉 정상이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하다’라고 정상비 뒷면에 새겨진 글귀 옆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이어 정상주한 잔. 붉게 물든 웅장한 자태를 감

상하면서 장터목을 지나 세석평전에 도착해 친지가 소개한 김종섭 세석분소장을 찾았다.

김 분소장이 공원관리에 관해 얘기하고 있으려니 산쓰레기를 가지러 온 헬기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자신이 만든 쓰레기면 자신이 가지고 내려가면 될 것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헬기를 운행하다니 기가 막혔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 일수록 공원입장료에 관해 할 말은 많은 법. 분소장에 인사 못하고 벽소령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인적이 드물어 설악에서 하지 못한 단풍을 여유있게 감상하면서, 해질 무렵 벽소령에 도착했다. 새 산장은 절경과 어울려 등산객의 마음을 사로 잡기에 충분했다. 석식준비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샘은 500m 정도 내려가야 한다고 한다. 이때 피곤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김부현 벽소령 분소장이 물을 한통 건넨다. 구세주가 따로 없는 순간이다.

산장에는 젓을 떤지 달포 밖에 안된 강아지 달구가 있었다. 달구는 재롱이 대단했다. 푸짐한 석식을 마치고 내일 산행 얘기를 꺼냈다. 숙소를



▲ 화엄사에 도착한 일행. 왼쪽부터 필자,염역장,장과장,이부장.

배정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텔레비전이 있는 방이 주어진다. 오후 9시 우리 방에는 월드컵축구 우즈베크와의 예선전을 보려는 등산객들이 몰렸다. 산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다니 이런 호강이 어디 있겠는가. 이날 우리 팀은 5대1로 대승했다. 모두 기분 좋게 꿈나라로 갔다.

구례구역에서 은어회 맛보다

새벽 5시에 일어났으므로 분소장에게 인사도 못하고 연하천산장을 향해 달렸다. 조금 걸으니 여명이 밝아왔다. 일출을 보기 위해 급히 형제봉에 도착하니 날은 흰히 밝아오는데 해는 보이지 않고 대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아담한 산장이 있는 연하천

에 도착하니 식성이 좋은 장과장, 조용한 이부장이 배낭이 가벼워졌다고 좋아한다. 염역장은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선두를 고집한다.

임걸령에서 쉴 때 장과장과 내가 벌에 쏘였다. 우리는 벌침이 몸에 좋다고 자위하며 3년 후에 같이

지리산종주를 다시 하기로 약속했다.

반야봉을 지나 노고단이 시야에 들어오니 중주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노고단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옆에서 한잔하던 분들이 약술을 권해온다. 함안 약초시험장에 근무하는 이들이 복수초술이라고 하자 술을 싫어하는 이부장도 군침이 도나보다. 우리는 하산길에 제법 취했다.

화엄종 본산 화엄사를 구경하고 온천에서 산행 피로를 풀고 구례구역 앞에서 은어회까지 맛본 후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지리산 산장에서 도움만 받고 밤고양이처럼 산장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 들어 관계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한다. ♪